

百濟武寧王妃墓碑碑陰冥券考追考

瀧川 政次郎*

얼마 전에 「百濟武寧王妃墓碑々陰의 冥券」이라는 題目으로, 同年7月, 韓國忠淸南道 公州에서 發見된 武寧王妃墓碑의 碑陰에 새겨진 冥券의 考證을 本誌에 寄稿하였었는데, 그후 어느덧 數十年 前에 본 바 있는 中村不折畫伯의 「禹域出土墨寶書法源流考」에 「急々如律令」이라는 句節이 있어 墨書가 많이 있는 것을 想起하여, 書架를 뒤져서 그 冊을 꺼내 檢討해보았더니 그것들은 漢代의 甕에 墨書한 道家의 呪文으로 甕은 喪祭의 道具였다.

먼저 論文을 補充할 만한 몇개의 資料가 있어 追考를 作成하여 다시 本誌에 寄稿하고자 한다.

「禹域出土墨寶書法源流考」에 記載된 漢代의 甕은 아래의 10개가 있다.

- 永和六年 (西曆一四一) 甕
- 永壽二年 (西曆一五六) 二月甕
- 永壽二年 (西曆一五六) 三月甕
- 建寧四年 (西曆一七一) 甕
- 熹平元年 (西曆一七二) 甕
- 熹平四年 (西曆一七五) 甕
- 光和二年 (西曆一七九) 甕
- 初平四年 (西曆一九三) 甕
- 三字甕 (無年月) 以上上冊錄載
- 中平四年 (西曆一八七) 甕 下冊錄載

이것들은 後漢(2世紀)의 것으로 높이는 6寸 내지 7寸 7分, 口徑은 2寸 2分 半

※ 日本 前國學院大學教授・法博

내지 7分, 胴徑은 3寸 5分 내지 5寸 3分 半, 底徑은 2寸 5分 내지 7寸 9分이다.

出土地는 대부분이 古都長安(陝西省西安府郊外)에 있고, 墨書의 書體는 今隸와 八分이 있다. 그 墨書의 代表的인 것 들을 다음에 실겠다.

(熹平元年甕)

熹平元年十二月四日
 甲申 爲陳叔敬等
 立冢墓之根 爲
 生人除殃 爲死人
 解適告 北冢公
 伯地下二千石倉
 林君武夷王生
 人上就陽 死人下歸
 陰生人上就高台
 死者深自藏生死
 各自異路急如律
 令
 善者陳氏吉昌惡
 者五精自愛其殃急々

(熹平四年甕)

熹平四年十二月^(甲午朔)□□□□
 三日丙申天帝日止移封鎮
 定邑里死人□□□□台冢墓^(得文カ)
 移丘丞墓伯地下二千石□^(墓カ)
 上墓下中央大□墓左墓右
 云門蔡酒蒿里父老令
 得文台家子孫^(後)□世無□
 復有死者上天倉^(蒼蒼)地下芒
 芒死人歸陰生人歸^{(陽)(主)(有)}□□人□
 里死人有鄉生人屬西長安
 死人屬東大山樂無相念^(善)□

無相思大山將閱人參應

□地下有適蠻人代行

□作千秋萬歲不得復

□生人相朔令胥氏家人

子孫富貴豪^(甕)謹誓財千

億子孫番息謹奉金銀

□深以謝墓主封鎮到

枚□□胥氏家家中三曾

五及皇□父母離丘別墓

御葬之祥勿令伐作各安

其所曠戶以閉累君

後世令無死喪他如天

帝日止鎮律令

이들甕은 그 法量으로 보아 骨壺가 아니다. 이것은 공기를 불어 넣고 密封해서 흙속에 묻어놓은甕이라고 생각된다.

西宮記 및 江家次第의 6月과 12月의 그믐날 御贖物(節折)의 儀式에는 天皇이 御口氣를 세번 열었다가 壺를 흙속에 묻어서 御穢를 털고 祈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陰陽道の 살풀이에 대한 遺習은 中國傳來의 것으로 그 起源은 멀리 漢代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前掲 熹平元年甕의 墨書에는,
爲陳叔敬等立冢墓之根.

이라고 있으므로 漢代에 있어서는 冢墓를 造築할때에 墓의 밑에 靈驗있는 道士가 呪文을 외우고 입김을 불어넣은甕을 파묻는 習俗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呪文을 외우고서 입김을 불어넣은 壺에는 커다란 呪力이 있어서 墓의 밑을 그 壺가 鎮安시키므로 死者와 원수가 되는 厲鬼나 精靈이 接近할 수 없다고 믿어 왔다. 즉 이러한 10개의甕은 墓를 鬼妖의 侵入으로부터 守護하기 위하여 흙속에 묻어놓은 呪文의 향아리 같은것으로서, 이들은 西安近郊에 있는 漢代의

荒墓로부터 發掘되는 물건으로 推測된다.

그러므로 甕의 表面에는 妖鬼가 墓域에 侵入하는 것을 防止하는 「除殃之辭」라는 것이 쓰여져 있다.

前掲 熹平元年甕의 墨書를 써내려가면

熹平元年十二月四日甲申, 陳叔敬等ノ爲メニ冢墓ノ根ヲ立テ, 生人ノ爲メニ殃ヲ除キ, 死人ノ爲メニ適(敵)ヲ解カントス. 北冢ノ公伯, 地下二千石, 倉林君, 武夷王ニ告グ, 生ケル人ハ, 上陽ニ就キ, 死セル人ハ, 下陰ニ歸ス. (故ニ)生人ハ上リテ高台ニ就キ, 死人ハ深ク自ラ藏ルベシ. 生死各路ヲ異ニス. 急如律令. 善キ者ハ陳氏ノ吉ク昌ユルコト. 惡キ者ハ, 五精ガ自ラ其ノ殃ヲ受クルコトナリ. 急々.

이라고 될 것이다.

熹平四年甕의 墨書는 消滅된 字가 많으므로 읽어 내려갈 수가 없지만 「天帝 日止移封鎮定邑里死人□□台冢墓」는 熹平元年甕의 「爲陳叔敬等立冢墓之根」에 相當하는 文句로서, 元年甕은 오직 「陳叔敬立을 爲하여 冢墓의 根을 立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만, 4年甕에는 天帝의 冊封을 받은 胥文台의 冢墓를 營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移丘丞墓伯地下二千石□□上墓下中央大□墓左墓右云門祭酒高里父老」는, 元年甕의 「告北冢公伯地下二千石倉林君武夷王」에 該當한다. 「移」는 「移牒」의 뜻으로서, 「告한다」라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丘丞墓伯」은 「北冢公伯」과 같은 것으로 北邙의 地主의 神을 말 한다고 할가 「墓上, 墓下, 中央, 墓左, 墓右」의 다섯은 墓의 五方의 神이다.

元年甕에는 이것이 倉林君, 武夷王이라는 두사람의 神人으로써 되어 있다. 「上天倉倉・地下芒芒・死人歸陰・生人歸陽」은, 元年甕에는 冗句를 省略하고, 다만 「生人上就 陽・死人下歸 陰」으로 되어 있다. 「□地下有適」은, 元年甕의 「爲死人解 適」에 相應하는 文句 이다. 「令胥氏家生人. 子孫富貴. 豪疆嘗財. 千億子孫番息」은, 「善者陳氏吉昌」을 敷衍하는 것이며, 「生人을 爲하여 殃을 除한다」고 하는 消極的인 願望은, 좀더 發展되어 福을 비는 願望으로 轉化된 것이라고 認定된다.

祖先의 冢墓는 風水先生의 說에 따라 四神에 相應하지 아니하면 子孫이 繁

榮하지 않는다는 漢民族의 民俗信仰은 이 漢代의 墓甕의 文句에서 보여지는 除殃의 思想에서 發展된 것이 아닐까고 생각된다.

中國民人の 墓에는 이와같은 信仰이 따라다녀서, 京漢鐵道の 敷設當時 墓의 強制移轉으로 인하여 政府가 民衆의 怨聲을 사게됐다. 이것이 中國에 있어서의 鐵道の 發達이 日本보다 늦어진 하나의 原因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墓의 밑에 埋葬한 甕은 그 墓에 埋葬된 死人을 邪鬼로부터 守護하는 護符로 쓰여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들 甕은 이번에 韓國의 公州에서 發見된 百濟武寧王妃墓碑의 碑陰에 보이는 冥券과 密接不可分の 關係가 있는 呪物이 아닌가 한다. 武寧王妃墓碑^々陰의 冥券 및 羅振玉의 「雪堂輒錄地券徵存」에 나타나고 있는 中國의 冥券도 역시 被葬者를 邪鬼의 侵害로부터 守護하려는 護符이기 때문이다.

墓甕의 文과 墓에 設置한 冥券의 文과의 相違는, 前者에 있어서는, 墓地가 地下를 다스리는 冥府의 王으로서의 神또는 天帝로부터 封與된 것이라고 主張하는데 대하여, 後者에 있어서는 墓地는 이들 神으로부터 對價(冥貨에 대한 對價)를 支拂하고 買得한것이라는 것을 證券으로써 立證하는데 있다.

「雪堂輒錄地券徵存」에는 後漢時代의 冥券이 收錄되어 있는데 冥券을 墓域에 備置하는 慣習이 墓甕을 흙속에 묻어놓는 慣習으로부터 進化된 것이라고는 斷言할수 없지만, 法律思想의 發達史를 더듬어보며 贈與는 賣買에 先立하였기 때문에 墓甕을 흙속에 묻어놓는 慣習은 冥券을 墓域에 設置하는 慣習보다도 오래 됐다고 생각된다.

하여튼간에 墓甕과 冥券과는 같은 目的을 가진 呪物이기 때문에 墓甕의 墨書와 冥券의 文言에는 同類語가 보인다.

前掲의 熹平元年甕에 보이는 「北冢公伯, 地下二千石, 倉林君, 武夷王」은 武寧王妃의 冥券에 보이는 「土伯土父母上下衆官二千石」에 類似한 것이 있고, 熹平元年甕의 「急如律令」은 武寧王妃의 冥券에 있는 「急々如律令」과 同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武寧王妃墓碑의 冥券의 文을 註解함에 當하여, 墓甕의 蒐集家였던 故 中村不折氏의 著書를 參考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을 깜박 잊어버렸던 것은 나의 迂濶한데도 있었겠지만 내가 「禹域出土 墨寶書法源流考」라는 論文을 보았던 것을 40여년 이상이나 지났으므로 그 記憶이 희미해

졌다는데도 원인이 있다.

이제 이 冊을 參考하여 얻은것은 武寧王妃冥券의 「土伯」은 司命, 司籍이 아니고, 北邙의 主라는 것이다. 北邙은 洛陽의 北郊에 城壁과 같이 기다란 丘陵이었는데, 洛陽의 都市人들은 그곳에다 많이 葬事를 지냈으므로 北邙이나 北冢이라는 말은 中國에 있어서는 墓地의 代名詞로 使用하기에 이르렀다. 日本에 있어서는 京都의 島邊山이나 仇野가 墓地의 代名詞로 使用되어온 것과 같다고 하겠다.

武寧王妃冥券의 「土伯」은 熹平元年甕의 「北冢公伯」과 比較하여 볼때 墓地를 다스리는 土地神 또는 地靈이라고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역시 나는 前考에 있어서 武寧王妃冥券에 보이는 「二千石」을 冥府(冥王泰山府君의 朝廷)에서 일하는 地方官(州의 太守)이라고 解釋한 바 있는데, 이 解釋은 熹平元年甕, 熹平四年甕에 「地下二千石」이라고 있으므로 그 解釋이 받은 것임을 뒤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倉林君」, 「武夷王」의 이름은 武寧王妃冥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雪堂輒錄地券徵存」에 收錄되어 있는 五代的 南漢大寶 五年 十月의 馬氏冥券에는 「地主武夷王」, 「賣地主神仙武夷王」이 있다.

武夷君은 景勝에 좋은 福建省崇安縣의 山에서 살고있는 神人으로 前漢書, 郊祀志에는, 「冥羊은 羊으로써 祭祠하고 馬行은 一青牡馬로써 하고 泰一, 臯山々君은 牛로써 하고. 武夷君은 乾魚로써 한다」라고 있으므로 冥羊, 馬行과 어울리는 下級の 神인데, 孝文帝때에는 冥羊, 馬行과 다같이 祠堂에 모시지 아니하게 됐다. 朱熹는 武夷九曲歌의 序文에서 武夷의 이름이 漢代에 나타나는 하나 과연 어떤 神인가를 모른다고 말하고있으나, 淸의 顧祖禹는 「讀史方輿紀要」의 武夷山의 記事에서, 이 땅은 옛날 閩蠻의 땅이었으므로 武夷王은 아마도 蠻族이 祭를 지내던 神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나는 이 顧氏의 說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武夷王은 蠻夷의 神이었으므로 그 神格이 낮았고, 道家者들에 의하여 어느 사이엔가 冥府의 臣僚로 造作된 것이다. 被征服民族의 神은 이 世上이 아닌 幽冥의 世界를 支配하는 神이었다는 例에 의하여서도 認定할 수가 있다.

倉林君의 경우에는 日本語의 晉語四에 보인다. (무릇 黃帝의 子가 25宗, 其

의 姓을 얻은者는 14人. (中略) 唯靑陽과 蒼林氏는 黃帝와 같다. 그러므로 모두 姬姓을 하다)라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하여 冥官으로 되었는지는 나로서는 理解할 수 없다.

그러므로 熹平元年甕의 倉林君, 武夷王은 武寧王妃冥券의 「上下衆官」의 代表로서 두사람의 神의 이름을 열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 아닌가 한다.

墓地인 地下, 黃泉은 「地王」인 泰山府君이 支配하는 곳이었으므로 墓地의 安全을 위하여 만들어진 墓甕 및 冥券은 그 땅을 「地王」 또는 地王의 朝廷의 官吏인 土公伯, 上下衆官, 二千石의 로부터 買受했다던가, 얻었다고 記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熹平四年甕에 「天帝」라고 한 것은 아마 相對를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道士가 아닌 民間人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에는 이와같은 잘못은 흔히 있는 일로 窺이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冥券에도 「天帝로부터 買受했다」든가 「即日錢財를 天地神明에게 分納했다」라고 한 것이 있다.

墓甕, 冥券은 日本의 古墓로부터는 發見되지 않는다. 그러나 墓甕, 冥券의 끝에 있는 상투적인 文句인 「急々如律令」의 呪文은 民間道教라고 해야 할 수 있는 陰陽道에 있어서도 많이 부르던 呪言이다. 二中歷, 第九呪術 에는 天皇이 歲旦四方拜에서 暗誦하는 呪文을 비롯하여 庚申의 밤에 暗誦하는 呪文, 沐浴時에 鐘소리를 듣고서 暗誦하는 呪文, 흉몽을 꾸었을 때, 吉夢을 꾸었을 때 暗誦하는 呪文, 우뚝소리를 듣고서 暗誦하는 呪文 등등이 記錄되어 있지만 그 맨끝에는 반드시 「急々如律令」도 있다.

재채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저주하는 주술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므로 재채기가 나올 때에는 그 저주를 해소하기 위하여 平安時代의 사람들은 呪文을 외었다. 二中歷에는 그 呪文이 記錄되어 있는데, 그것은

休息萬命. 急々如律令.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陰陽道가 盛行하던 平安時代에는 재채기가 나올 때에는 모든 사람이 이 呪文을 불렀으므로 마침내는 코푸는 것을 재채기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재채기는 「休息萬令」의 略語인 「休息令」을 급히 불러서 クソミ라고

クソミ

말하던 것이 訛傳되어 クサメ가 되었다. 上方地方에서는 지금도 코푸는것을 クツヤミ라고 말한다. 醫學生에 대한 房中術教授用的 「偃側圖」(남자는 엎디어 있고, 여자는 발닥 누어있는 그림)를 吳音으로 읽어 オンソクヅ가 짧게 오즈クヅ가 되고, 「おぞくづの繪」가 春畵를 의미하기에 이르른 것과 같은 말의 변화이다.

脚^{キヤクハン}胖이 키야한이 되고 通^{ツラセ}夜가 ツ야가 된 것도 급히 부르는데에 원인이 있다. 재채기가 코를 풀 때의 呪言이었던 것은 徒然草 第47段에

어떤 사람이 清水에 參拜갈새, 높은 비구니와 같이 갈제, 거름마다 「재채기 재채기」라고 말하면서 가거늘, 스님이시여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나이까, 문자와도 대담치 아니하고 더욱 말하며 그치지 아니 하거늘 또 물고 또 물으니 화가 난듯 「야, 야, 콧물이 나올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하나니, 그대 比叡山의 어린애 인가, 바로 이제도 콧물이 나올듯 생각되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일세」라고 이르더라. 고마운 뜻이 아닌가

라고 써있는 것에 의해서도 명백하지 않은가,

武寧王妃의 冥券에 보이는 道敎의迷信은 陰陽道에 의해서 日本에 傳來되어 國民大衆에게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여파는 現代에까지도 미치고 있다.

재채기가 나오는 것을 누군가가 自己를 저주하고 있다는 呪術의 信仰은 近世에 와서는 없어지고, 現代에 와서는 누군가가 自己를 批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재채기가 한번 나오면 칭찬하는 것이고, 두번 나오면 흉보는 것이고, 세번 나오면 감기가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近代化된 解釋이라 할 것이다.

クサメ라는 呪文의 아래에 急々如律令의 呪言이 따르는 것과, 이 呪言이 漢代帝國에서 施行되던 律令法典의 威力을 빌려온 것이라는 것은 日本의 國語學者, 民俗學者의 記憶에 남겨두고 싶다고 생각 한다.

〈法博・本會會長 田鳳德 譯〉